

투데이 칼럼

코로나19처럼 유행하는 산불도 예방이 최선이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등에서 유럽에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 모델을 극찬하고 있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는 코로나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운동을 잘 지켜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우 삼

무진장소방서 현장대응단 1팀장

봄이 되면 우리산림에도 전염병이 든다. 전염병은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해마다 봄철 산불은 아직도 종식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서 전염병처럼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주요 산불로는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1,291억원 피해,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군 산불(낙산사가 소실) 276억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 문화재들이 불에 타, 쓰러린 교혼을 준 산불로 기억되고 있으며, 해외의 주요 산불로는 2019년 9월부터 2월까지 호주 남동부를 덮친 최악의 산불로 한반도 면적의 28%에 해당하는 630만 헥타르의 숲이 소실되고 주택 1300여 채를 포함한 2500여 개의 건물들이 전소되고, 불은 폭우 등 자연적인 도움으로 겨우 진압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생하기 쉽고, 발생 시 대규모 산불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 할 것이다. 산불예방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저감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최근 도내 10년간 산불통계에 따르면 봄철(3월-5월)에 55%로 피해가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원인은 쓰레기 소각 33%, 논·임야 태우기 27%, 담배꽂초 11%, 불씨방치 8%, 기타 21% 등 대체로 인적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함을 수치가 보여주고 있으며, 피해상황은 인명피해 10명(사망 5명, 부상 5명), 소실면적 77ha,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담배꽂초 부주의로 추정된다. 화재원인은 미상인 경우가 있지만, 담배꽂초를 발견하는 경우도 많다.봄철 담배꽂초는 산불화재가 발생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산림 지역에 있을 때는 인화물질 소지 및 담배꽂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2020. 3. 18.(수) 15:00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하였으며,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는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 절대 금지).

사진 확인). 셋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지 않는다. 넷째 산불을 발견했을 땐 즉시 119 또는 112, 군청, 읍·면사무소, 경찰에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일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하고, 무리한 진화는 하지 않는다. 무진장소방서에서는 산불위기 경보가 경계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 등 주요 등산로 입구 산불예방캠페인, 논·밭두렁 쓰레기소각행위 금지 홍보 및 교육, 주요 행사장 특별조사 및 현장 지도방문, 특별경계근무(청명, 한식), 산림 내 문화재 등 합동안전 점검 및 화재진압훈련, 의용소방대 산불지킴이 운영 및 산불화재 예방순찰(1일 2회)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경계」로 상향 발령 하였으며,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다.

니무도 동물도 사람도 다시 그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소중한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산불로부터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도민 여러분도 아름다운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산불방지 예방 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

사설

코로나 극복 시민 연대가 중요하다

얼마 전에도 당부한 바 있지만 전북도는 청정 환경 지키기를 계속 강고히 해야겠다. 뉴스를 통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건강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생각이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9천137 명이나 되고 사망자가 126 명인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실시간대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요양병원들이 너무나 심각하다. 확진 환자가 하룻밤 사이 수십 명 단위로 마구 불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사망자가 날마다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철조적으로 나오는 일부 교회들도 걱정이 된다. 그쪽 목회자들 중에는 아무런 과학적 자연적 필연성이 없는 거짓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런데 놀랍고도 답답한 것은 신도들이 중간 중간 호응하여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맹신이라도 어이없는 맹신이다. 지금 전북도와 보건 당국은 잘

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하고 있다. 도내에 코로나 확진환자가 10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북도와 보건 당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해 우리 전북의 경우는 청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끼고 2미터 이상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등 전북도와 보건 당국 관계자들의 호소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렇다. 코로나 19와의 전쟁은 전북도와 보건 당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일반 시민들도 할 일이 있다. 보건 당국이 요구하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순응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시민 연대의 실천으로 평가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은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것은 연대 의식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들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깔보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코로나 극복에는 시민 연대가 큰 힘을 발휘한다.

도내 청년들 취업 고민 여전하다

도내 청년들의 취업 고민이 여전하다. 지금이 봄철이기에 청년 취업의 봄날은 언제 오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전국적으로 청년 취업률이 올랐지만 전북의 경우는 그것을 체감할 수가 없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들 중에서 16위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저번에도 말했거니와 전북도는 청년 취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다.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래야 한다. 취업을 보고와 관련해 여기 할 말이 있다. 전북도가 때때로 내놓은 보고와 서울 쪽 언론사에서 내놓은 보도를 비교해보면 서로 안맞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 또 당부한다. 전북도는 청년 취업을 말할 때 정지해야 한다. 호도하려고 해서 안된다. 취업을 최저라는 성적표를 과연 언제까지 품에 안고 있을 것인가. 정말이지 청년 취업 활

성화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북도는 미취업 젊은이들이나 비정규직에 있는 젊은이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여지사지 해야겠다.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취업 열기를 더 달구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물론 도내 모든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 고용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청년 취업문제는 순종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전북도는 청년 취업과 관련해 좋은 사례를 많이 보여주어야 한다. 그럼려면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 취업 실적이 낮음에도 괜찮은 것처럼 넘어가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일자리 창출은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의 능력 발휘가 관건이다. 청년 취업의 봄날이 빨리 와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북도와 관계자들은 지혜를 모아야겠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태국 쇼핑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습



2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한 쇼핑몰을 포장 음식 대기 구역에서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정 구역에 배치된 의자에 앉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연습을 하고 있다.

나눔 실천하는 미네애플리스 주민들



23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네애플리스의 한 가정집 앞에 "필요한 것은 가져가시고 나눌 것은 두고 가세요"라는 안내문과 함께 각종 음식과 생활용품 등이 놓여 있다. 이곳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맞서서 서로를 돌봐주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